주일가정예배

[농어촌주일]

2023년 6월 4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 인도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시66:1-2,8-9)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험난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생명수 강가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주께서 베푸신 푸른 초장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흑암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80장 ····· 다같이

1.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2. 괴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3.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후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마가복음 3:1-6 ····· 인도자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설　교 ····· 『 손을 내밀라 』 ····· 인도자

기　도 ····· 설교자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6월 되게 하옵소서.
2. 사명에 맞는 달란트와 능력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3. 교회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손을 내밀라

마가복음 3:1-6

신자든 비신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릴 것 없이, 움켜쥐기만 하지 놓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가 불투명하니까 모두 움켜쥐고 쓰지 않아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위해 우리의 손을 펴야 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거나 기도하러 왔을 것이다. 자기가 손 마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먼저 부탁한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 교훈을 주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 이적을 행하셨다. ▶먼저 안식일을 보내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를 보자. 그곳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것을 예상했던 것 같다. 예수님에게는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고발할 증거를 확실하게 잡겠다고 함정을 파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을 두고 얼마나 못 됐는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면서 생명을 구하시는 예수님과, 악을 행하면서 죽일 궁리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물론 예수님은 평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지만 안식일에도 동일한 사역을 이어가셨다. 안식일을 그저 잠자코 쉬는 날이 아니라 병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날, 장애를 극복하는 날, 생명을 얻는 날로 삼으셨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장애를 벗겨주는 것이 안식이다. 자유롭게 되고,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날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결과다. 어려움을 감수하지 못하면 남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없다. 사실 죄를 짓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죄다. 안식일 계명의 바른 이해는 율법 정신에 있는데, 율법의 요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만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을 막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선물이지 얽어매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며, 이날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손 마른 사람과 완악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또 다른 대조를 이룬다. 한 손 마른 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고해졌다. 세상에는 육체적인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 인격적 장애도 있다. 지금 두 종류의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다. 한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장애를 지닌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손은 성한 대신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이다. 마음의 완악함이 제일 큰 해악이다. 병자는 신유를 통해 마음까지도 치유를 받았겠지만 바리새인은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결과를 얻었다.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사람들의 반대와 적의를 예상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 그들과 대립하기로 결단하셨다. 그래서 감시의 눈초리를 느끼면서도 병자를 가운데 세우셨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손 마른 사람도 자기 결정에 의해 예수님을 선택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다. 아픈 손, 부끄러운 손, 감추고 싶은 손, 쓸 수 없었던 손, 마비된 손을 내밀었다. 숨기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부끄러워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내밀라고 하신다. 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다. 회복된 그 병자는 이후로 그 손을 가지고 움켜쥐지 않았을 것이다. 베푸는 손, 붙들어 주는 손, 도와주는 손, 기도하는 손, 봉사하는 손, 섬기는 손, 나누는 손으로 썼을 것이다.